[천수림의 현대사진산책+] 환영과 사물 사이, 사진의 통로

비타우타스 쿰자, 정정호

2026. 06. 25. | 천수림(사진비평)

디지털 가상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진은 여전히 '환영'일까? 이때 사물의 날것 그대로의 물질성이 개입하면, 사진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는지 질문한다. 비타우스 쿰자는 사진 이미지 위에 작가의 손이 닿은 구체적 물질을 결합하는 반면, 정정호의 연작은 그것을 존재했으나 지워진 이들과의 연결고리로 삼는다.

사진과 오브제가 결합할 때 사진은 고정된 평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물질이 실시간으로 충돌하고 교류하는 통로(Portal)가 된다. 비타우타스 쿰자가 물질을 통해 사진의 매체적 환영을 '의심(Deconstruction)'하게 만든다면, 정정호는 그 물질을 통해 사라진 존재를 '증명(Reconstruction)'해낸다.

비타우타스 쿰자, 가상과 현실의 중첩

디스위켄드룸, 구나, 비타우타스 쿰자 2인전 '기울어진 증거들'.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디스위켄드룸은 구나, 비타우타스 쿰자 2인전 '기울어진 증거들'(5월 15일~6월 20일)을 진행 중이다. 두 작가는 각자의 몸과 지각 체계는 올곧기보다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동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타우타스 쿰자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리투아니아 출신 작가다. 그동안 사진 매체를 바탕으로 한 조각과 설치 작업을 통해 일상의 사물들을 탈맥락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직접 사용하거나 수집한 유리, 금속 체인, 안테나, 경칩, 수갑, 머리카락 등 혼종적 재료는 사진 이미지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사진 이미지와 자신의 손이 닿은 물리적 수집물이 결합되는 순간, 우리는 보는 시각적 방식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그동안 사진은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매끄러운 평면(종이 또는 스크린)에 박제하는 매체로 인식돼 왔다. 쿰자는 사진 이미지 위에 실제 사물(오브제)을 덧붙이거나 타공하는 방식을 통해 사진의 2차원 평면성을 격렬하게 교란하며, 관람객에게 시각을 넘어선 촉각적(Tactile) 경험을 강제시킨다.

디스위켄드룸, 구나, 비타우타스 쿰자 2인전 '기울어진 증거들'.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관람객은 눈으로 이미지를 '읽으려' 시도하다가도, 화면 위에 돌출된 경칩, 안테나, 체인 등의 물질성을 마주하며 '만지고 싶은(촉각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 사진 속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공간적 환영은 그 위에 얹어진 실제 사물의 그림자와 부피감으로 인해 깨어진다. 이런 환영(Illusion)의 파괴는 사진을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조각적 오브제'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사진 기호학에서 사진은 대상이 그 자리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지표(Index)'적 성격을 지닌다. 쿰자는 이 지표성을 두 가지 층위로 중첩시킨다. 사물들을 탈맥락화해 포착한 기록과 그 위에 부착된 수집물들은 작가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수집하고 손으로 만진 현재의 물질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남겨진 이미지는, 작가의 신체적 행위(수집, 가공, 부착)가 물리적으로 흔적을 남긴다. 이로 인해 작업은 기계가 포착한 가상의 공간과 작가의 손이 닿은 현실의 공간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그가 선택하는 오브제들(수갑, 안테나, 머리카락, 체인 등)은 각자 강렬한 사회적, 기능적 맥락을 품고 있는 사물들이다. 수갑이나 체인은 '구속'과 '연결'을, 안테나는 '신호'와 '소통'을, 머리카락은 '신체성'과 '부패/유기'를 연상시킨다.

작가는 이 사물들을 본래의 기능에서 떼어내 사진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사물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증발시키고 낯설게 만든다. 매끄러운 유리 너머의 사진 이미지와 날것 그대로의 금속 체인 사이에서 기묘한 긴장감과 불안(Uncanny)을 느낀다. 비타우타스 쿰자는 재현된 이미지(사진)와 실재하는 물질(오브제)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사이의 간극을 탐구한다.

정정호, 우연의 일치

국제갤러리 사진 기획전 '진동하는 사물들'. 사진=천수림

국제갤러리는 사진 기획전 '진동하는 사물들(Objects in Oscillation)'(6월 9일~7월 19일)을 진행 중이다. 동시대 한국 사진작가 9인의 정물 사진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어떻게 사물과 마주하고 관계 맺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중에 정정호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노무자였던 할아버지의 삶을 추적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코인시던스(Coincidence)'(2027-2018) 연작을 선보인다. 작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부족 한 자료와 접근이 제한된 장소들에 맞닥뜨린 작가는 사라진 역사를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한다.

작가는 바닷가와 대부도 주변 지역을 거닐며 탄피, 철사, 끈, 나뭇가지, 바위 조각 등의 물질적 오브제를 수집한다. 여기에 아버지의 빛바랜 군대 사진, 아카이브 문서 등을 재구성해 촬영한다. 작가는 아버지와의 인터뷰 외에도 조사, 수집, 조합을 거치는 긴 작업 과정은 지워져 버린 존재들과 연결된다. 최종 결과물인 사진은 그 모든 행위의 증표로 남는다.

작가는 할아버지를 생전에 만나지 못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유복자였다. 이미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미군들이 일명 지게부대(A-Frame Army)라 불렀던 전쟁 노무자(KSC, 대한민국 노무단)였다. 작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화지구(철의 삼각지대)에서 총도 없이 지게에 전쟁 물자를 싣고 산을 오르다 목숨을 잃었다.

작가는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공식 문서와 전쟁 기록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 개인의 뚜렷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격전지였던 현장은 현재까지도 통제구역으로 출입할 수 없다. 할아버지의 삶을 추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면서부터다.

국제갤러리 사진 기획전 '진동하는 사물들'. 사진=천수림

미군들의 폭격 연습장소로 남아 있는 곳이라 폭탄 파편들이 남아 있었다. 만조에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할아버지의 죽음과 겹쳐지면서 할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었지만, 그때 마치 접신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죽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때부터 총알 탄피와 전쟁 때 사용되었던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출력해 콜라주로 사용했다. 작가는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을 저조차도 아버지다움에 대해 배우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어요"라며, 이 작업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좀 놓아주는 작업이었다고 고백한다. 작가는 사진의 뒷면이 없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웠다고 말한다. 사진은 조각과 달리 찍힌 이미지를 보면 정보들을 더 빼곡하게 들어있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체다.

'썸머 인(Summertime in) 1952' 작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미군 콜라주 사진과 바닷가 떠다니는 부표를 결합한 작품이다. 멀리서 보면 바닷가 쓰레기일 뿐이지만, 부표는 견고한 암석처럼 보이고, 웃고 있는 미군 아카이브 사진이 재편집돼 있는 작업은 하나의 얼굴처럼 보이는데 작가는 그 사진을 볼 때 1952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이중적인 아이러니를 느꼈다.

작가는 크리스티안 볼탕스키와 어빙 펜의 작업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볼탕스키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업을 보면 빛바랜 사진과 반짝반짝 빛나는 조형적 요소가 존재한다. 어핑 펜의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해골 역시 정정호 작업을 이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의 삶이 풍화돼 오직 '희미한 도상'으로만 남았을 때, 사진은 한없이 무력하다. 하지만 역사적 장소에서 굴러다니던 물질들이 결합되는 순간, 사진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물리적으로 붙잡아두는 물질적 제단이 된다.

쿰자는 사진이 평면을 벗어나 오브제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지각의 교란과 매체적 확장을, 정정호는 완전하지 않은 파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현재에 소환'하고 재구성한다.

글: 천수림(사진비평) / 이미지 제공: 디스위켄드룸, 국제갤러리

<작가소개>

비타우타스 쿰자는 빌뉴스 디자인 칼리지, 헤이그 왕립예술아카데미(KABK), 헤리트 리트펠트 아카데미 미술학 학사를 졸업했다. 코다 뮤지엄(아펠도른, 2023), 마르틴 판 조메런 갤러리(암스테르담, 2023), 루스터 갤러리(빌뉴스, 2022), 프로스펙토 갤러리(빌뉴스, 2021), 빌라 몬드리안(빈터르스 베이크, 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체코, 멕시코, 프랑스, 한국, 우크라이나 등 국제무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주요 전시기관으로는 디스위켄드룸(서울,2026), THIRDBORN(멕시코시티,2026), 암스테르담시립미술관(암스테르담, 2024), 한미사진미술관(서울, 2021) 등이 있다. 네덜란드몬드리안재단과 리투아니아문화위원회로부터 기금을 수여받았으며, 코다미술관(네덜란드), 램미술관(네덜란드), MO미술관(리투아니아), 보이만스반뵈이닝언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립미술관(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네덜란드), 노에베재단(리투아니아), GCA컬렉션(프랑스)등에 작품이 소장된 바 있다.

정정호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신 터'(보안여관, 2025), '믿음의 지형학'(금천예술공장, 2024) 등이 있다. 단체전으로는 '컴백홈'(서울시립 사진미술관, 2026), '공존'(미텔라인 미술관, 코블란츠, 독일, 2024),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2), '보존과학자 C의 하루'(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0) 등이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출처] 문화경제 CNB저널

(https://www.cnbizm.com)